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특별시 인천
	배포일자	2021년 10월 13일(수) 총 4매	
담당부서 수 산 과	담 당 자	• 어업지도팀장 이재천 ☎440-4861 • 담당자 서현진 ☎440-4865	
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앞바다 특산물 꽃게, 10년 만에 최대 풍년

- 올 상반기 전년보다 52% 증가, 전국 꽃게 어획량의 약 45% 차지, 전국서 가장 많아 -

- 치어 방류와 불법어업 단속 병행, 꽃게 어획량 증가로 어업인 소득 증대 노력 -

인천앞바다 특산물인 꽃게가 가을어기를 시작한 9월에는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풍어를 이루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꽃게 어획량이 작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가을어기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봄부터 인천 연평어장에서 꽃게가 많이 잡혀 수협 위판량 기준으로 상반기에는 작년 보다 52% 증가했으며, 금년 9월 한 달 동안 2,117톤을 어획해 작년 9월 어획량 1,826톤을 훌쩍 뛰어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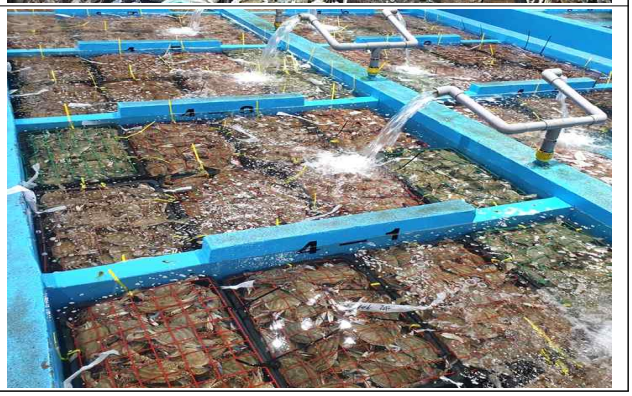
이처럼 꽃게 어획량이 증가한 요인은 지난해 여름 긴 장마로 인해 강수량이 증가해 영양염이 육지에서 바다로 충분히 공급됨으로써 동물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식물플랑크톤이 잘 생육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시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꽃게 치어 방류 사업을 지속적 실시하고,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포획 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단속을 추진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자원증대에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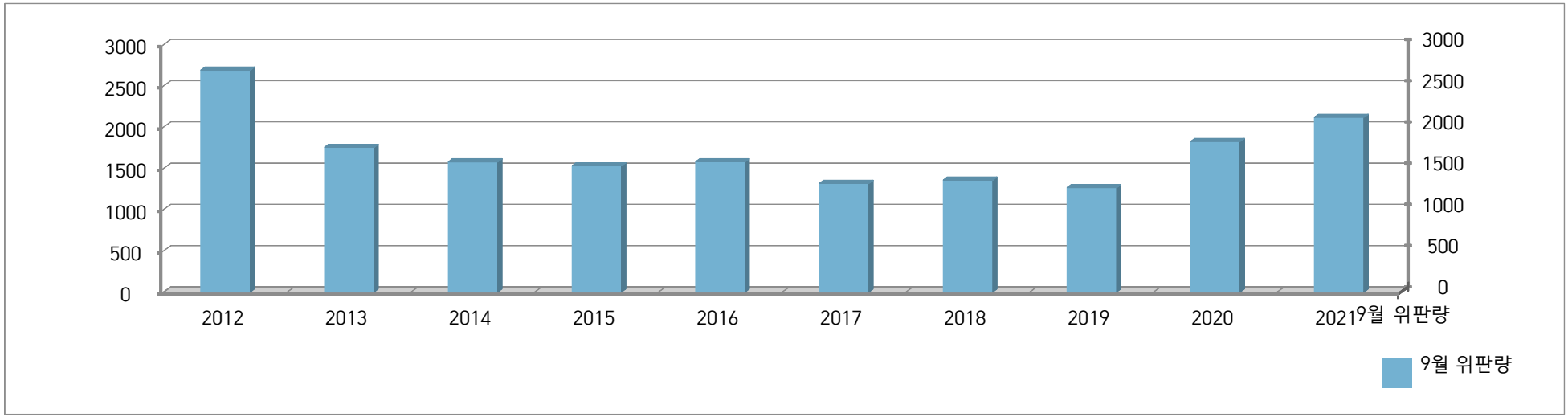
인천은 전국 꽃게 어획량의 약 45%를 차지해 전국에서 꽃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며, 인천시에서 주로 많이 조업하는 어장은 연평어장, 백령·대청어장, 서해특정해역, 만도리어장, 인천 연안어장 등이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인천 관내 꽃게 자원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되어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치어 방류와 불법어업 단속을 병행 실시해 꽃게 어획량 증가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꽃게 사진 및 인천시 9월 꽃게 어획량(2012 ~ 2021)



참고 인천시 9월 꽃게 어획량(2012 ~ 2021)

(톤,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위 판 량	2,690	1,753	1,577	1,528	1,579	1,317	1,356	1,264	1,826	2,117
위판금액	13,478	9,772	9,272	12,464	12,003	11,932	16,818	15,021	20,636	17,517